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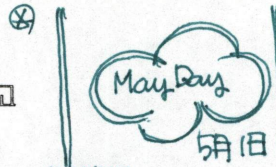
98년 10차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4월 15일)

* 자치단체(table) 예산

1. 보고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2) 각 국별 보고



4.5%
5% → 0.5%↑

‘단대학생회?’
예산자치제

→ (자치운동)의 측면

생각대 자파티
→ 생협 생파티

④ 수업

Queer 영화제 사무소 운영 100% WOBM?
· 동성애 관련 영화제.

2. 논의 사항

1) 총여학생회-자치단체 한마당 평가

2) 대동제 (5월 11일-15일) 사진전 제안-구두 발제

(총학 기획서 별첨)

3)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기조토론

3. 공지 사항

1) ‘끼리끼리’ 일일호프-4월 19일 이른 12시부터 늦은 12시까지

2) 미인대회 준비토론-4월 ~~양일~~ 6시 그리하여 다음 주 집부회의는 ~~수요일~~에...

양일

다음

4. 다음주에는...

1) 미인대회 준비시작

2) 시험을 잘 치자

1) 자치총회 한마당 평가

‘아쉬움점’
배판

- 구체적인 피력(부족, 평가(자보) 사업의 마무리(자보), 피장력을 지니 못함(구체적 내용 알람)
- 기록 → 알려냄(기록의도, 내용)
- 자치단체 예산문제,
- 자치단체 뒷받침.
- 평가 한마당의 주점 조점이 불분명. 자치단체의 어려움, 하는 일 확실히
- 총여와 자치단체의 관계, 총여의 위상에 대한 고민
- 선언문서

1998년 연세대학교 대동제 기획안 (草案)

자유와 공존을 향한 '98 무악대동제



- 일 시 : 1998년 5월 11일(月)~16일(土)
- 장 소 : 연세대학교 교정 곳곳

1. 기초

- 98년도 "自由大學"의 운영원리인 '자유와 공존'의 가치를 축제라는 시/공간 속에서 펼쳐낸다.

2. 기획의도

-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하나의 획일성만이 강조되거나 개인주의가 만연되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사상·가치관·문화 양식이 공존할 수 있는 축제를 그리고자 한다.
- 2만연세라는 환상적 주체호명으로 인해 소외되어진 각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공존의 장을 추구한다.
- 대학문화의 아마추어리즘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자 한다.
- 축제에 대한 '향락' 對 권위/엄숙/경건' 등 이분법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3. 컨셉



"스스로!" -자·울

: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라고 우리는 늘 교육받아왔지만 한번도 우리에게 그 '스스로'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자유와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조차도...

우리는 오직 소비의 순간에만 '스스로'였다.

알아서 있는 만큼 쓰고 알아서 벌고..그러다 벌지 못할땐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된다.

'나는 이 사회의 잉여인간이 아닌가' 하고, ~~갈수록 늘어나만 가는 실업률~~의 증가는 예비취업자인 우리의 모든 일상을 불안의 연속으로 바꿔버렸다. 돈이 모든 사고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어로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유로운 인간임을 잃어버린 우리들.

잊지말자, 그대는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임을...

진보의 영역처럼 여기지던 대학에서도 심지어는 진보의 가치 안에서도 이 '스스로'의 가치는 철저히 숨을 죽여 왔다. '자발성'을 무시한채 '의식성'만을 냉혹하게 부르짖는대거나 '자생성'을 강조하다가 현실 앞에선 꿀먹은 벼어리가 되어버린 많은 지식인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다.

의식성과 자발성은 결코 대립이 되어서는 안된다.

서로가 서로를 떠받쳐줄때 각자는 변혁을 향한 빛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가장 '스스로'이지 못했던 이 시대의 모든 진보의 미래를 대신하여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한다.

"함께!"-공·존

'함께하자', 말하긴 너무 쉬워도 행동하긴 어려워라!

옆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조차도 우린 목적이 있는 만남과 대화를 나눈다. 목적이 없다면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나와는 상관없다거나 나의 이익에 보탬이 되질 않는다면 우리에게 '함께'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허함의 연속일 뿐이다. 나와는 다른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인정하지 않는 지독한 배타만이 우리 모두를 고립시키고 있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세기말의 대논쟁이 이제 막을 거두려한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본성에 관한 흡스 식의 정의에 이끌리며 자유주의의 이름에 손을 들어준다. 하지만...

'공동체'의 이야기가 획일화와 단결의 논리로 식상하고 억압적으로 들렸다면, 자유의 이름으로 가해졌던 모든 억압은 인간의 삶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나와 같아야함을 주장하진 않는다. 우리는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한다. 서로의 차이에 의해 서로를 억압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0.75평의 좁은 공간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양심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들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모든 사람, 사물과 함께 살아가기, 共存!

그것은 인류가 생긴이래 그들의 공동체를 몇만년간 이끌어온 삶의 원리였다.

그것은 대학이라는 공간을 넘어 삶의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져야할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가치이다.

4. 축제의 의의

• 반권위주의적 민중유희로서의 축제

-축제(祝祭)는 한 지역에서 혹은 특정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축제의 시/공간에서는 일상의 억압적 기제가 철저히 뒤틀려 나타나기도 하고 권위로 C'겨지던 제도와 관계가 철저히 풍자화되고 뒤집어 나타나기도 했다. 봉산탈춤의 '말뚝이'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가 축제를 통해 드러나는 민중의 반권위주의적이며 현실주의적인 모습임을 드러내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축제라는 시/공간에서 만큼은 일상을 억압했던 질서와 제도가 전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가능성은 실제적인 현실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징화'되었지만 지배적인 가치/제도/관계의 '상징폭력'에 대한 일탈과 저항의 가능성을 남기는 시도로 역사 속에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가깝게는 1969년의 WOODSTOCK 페스티벌이 그 예이다.

요컨대 축제가 어떠한 의식성을 내포하는가의 문제이기 이전에 축제라는 양식이 정해진 틀을 거부한다는 것과 억눌려있던 수많은 익명성을 집단적으로 분출시키는 '공개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재생산을 도모하는 기재로서의 축제/일상을 파괴하고 상상력을 해방시키는 場으로서의 축제

축제는 일상적인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나와는 다른 내가 축제의 주동적인 인물이 된다. 새로이 창조된 나, 새로이 형성된 주체의 상상력이 바로 축제가 지닐 수 있는 에너지인 것이다. 일탈하는 순간 나는 자유인이라는 관념 때문에서가 아니라 일탈을 통해 지치고 시든 나의 일상을 보듬어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삶의 의욕/변화의 계기에 대한 희망)을 비축시켜주기 때문에서이다. 당연히 그 힘이 곧 육체적인 면(-휴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새로이 태어나는 기쁨과 새로이 창조되는 느낌을 갖고 축제 이후의 일상에 당당히 충돌해나가자!

- 획일화된 강제적 집단화가 아닌 자발성의 집합으로서의 축제

상대성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의 축제에는 말 그대로 절대성이 존재할 수 없다. 일례로 나 이외의 다른 누군가가 표출하는 일탈의 욕구가 먼저 비난받아서 안되며 오히려 억눌려 있던 다양한 목소리와 욕망을 분출시킬 수 있는 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획일화된 '大同'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로간에 차이가 존재함과 그것의 긍정을 통한 공존의 논리가 축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곧 우리는 자발성의 집합으로서 축제의 공간을 꿈꾸고 싶다.

5. 준비계획

- 명칭: "자율과 공존을 향한 '98 무악대동제 기획단"

- 체계

- 자율과 공존의 축제를 추구하는 모든 참가단위 대표자들의 회의

- 대동제 기간중의 '자율과 공존의 거리'를 기획한다.

- 소외의 벽 아래 놓여있는 연세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기획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한다.

: 인권/장애/여성문제와 함께 복학생/학부제로 인한 학번세대의 소외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 총학생회 집행국 2인과 함께 수행

6. 세부일정 (草案)-세부기획안은 추후제출합니다.

- 술문화 / 학부제에 관한 설문조사

: 대동제 기간에 진행될 민중연대 장터와 자율과 공존의 거리에 대한 사전작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술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민감해진 상황에서 장터가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이며, 올해로 학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느끼는 학부제 세대들의 고민들을 들어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 민중연대 한마당 장터와 자율과 공존의 거리

: 민중연대 장터에 연계할 단체들을 미리 만나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i) 연대하지 않는 단위에 대해서는 장터의 자리를 배정하지 않는다.

ii) 장터만을 위한 형식적인 연대가 아니라, 일상적인 연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iii) 민중연대 한마당에서는 민중연대 경연대회 -체육대회, 퀴즈행사등-을 통해 민중연대를 기층의 일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인간적 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이 목표이다.

- 전야제

: 백주년 기념관 앞에서 야외영화제를 계획중입니다. (작품선정은 추후에)

- 개막제 -길놀이와 전통혼례

전통혼례
길놀이
공존의 거리

- 98 대학문화 찾기

(일일호프)

美人대회 기소

농구대